

수신: 이과대 사무실

발신: 제13대 별 수 있/다 총여학생회

1. 안녕하십니까?

제 13대 별 수 있/다 총여학생회입니다.

2. 이과대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과 관련해서 공간 배정과 여휴 내 비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저희 총여학생회에서는 이과대 학생회와 여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학기 교학부장님과 여휴를 새로이 구성하기로 약속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학부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안이 관철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예전의 소파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다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4. 여휴가 편의점과 마주보고 있고 옆에는 자판기가 설치됨에 따라 주위의 어수선�함과 소음 때문에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보다는 그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한정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여휴가 이과대 사무실의 문서보관창고로 쓰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5. 또한 여휴로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으나 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예전의 소파와 테이블만을 그대로 들여놓음으로써 이과대 여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6.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에서는 여휴의 공간구성과 비품에 대한 약속이행과 여휴의 공간을 예전의 여학생 휴게실로 옮기는 것을 재안하는 바입니다.

강력하게 어하.

7. 감사합니다. 끝.